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신라의 관음보살이 조신을 교화한 까닭은?

1. 관음사상의 신라적 정착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열 가지 악을 '참고 견디는 곳' [忍土]이라는 뜻에서 사바(娑婆, 堪忍)라고 한다.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고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듯이 아픔을 느끼는 이들이 사는 곳이 사바세계다. 만일 중생이 다하고 환자가 다하면 그곳은 이미 극락이요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과 환자를 고칠 대의왕(大醫王)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셀 수 없는 중생들이 있기에 거기에 부응하는 구제자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다. 보살은 붓다의 자비와 지혜 및 덕행과 원력 등을 의인화한 존재이지만 중생에게는 실존적 존재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살들은 중생들의 물리적·심리적·정신적 병들을 낫게 해 주는 순간 이내 사라진다. 이미 자신의 기능과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다.

관음신앙은 붓다의 자비의 화신인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이다. 관음신앙은 서진의 촉법화가 번역(286)한 『정법화경』(10권)의 「광세음보살보문품」(제23품)에 의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광세음신앙'으로 전개되었던 이 신앙은 구마라집(344~413)이 번역한 『묘법연화경』(7권)의 「관세음보살보문품」(제25품)에 의해 비로소 '관세음신앙' 혹은 '관음신앙'으로 정착하였다. 여기서 빛을 뜻하는 '광'과 '봄'을 뜻하는 '관'은 숨어는 다르지만 중생 구제의 합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음신앙은 영험과 영웅에 기초하면서 중국 민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보문품경』 혹은 『관음경』으로 유통되면서 관음보살의 명호를 지송하는 신앙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 왔다.

통일 이전 신라의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말하는 순수한 관음신앙과 그 영험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중생이 갖은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지고 이름을 부르며 늘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예배 공양하면 곧바로 고통과 고난을 구제하여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아들 얻기를 바라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가르침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이틀테면 자장(慈藏)의 아버지인 소관(蘇幹) 무림(茂林)은 아들을 얻기 위해 삼보에 귀심하고 관음상 천부를 조성하여 서원하였더니 4월 8일 불탄일에 그를 낳게 되었고 이름을 선종랑(善宗郎)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그 이후 낙산사의 창건연기에 나타난 것처럼 『법화경』에 기반한 관음신앙은 『화엄경』에 기반한 관음신앙의 일면까지 수용하여 신라 관음의 신앙적 정착으로 굳건하게 확립된다. 하지만 신라의 관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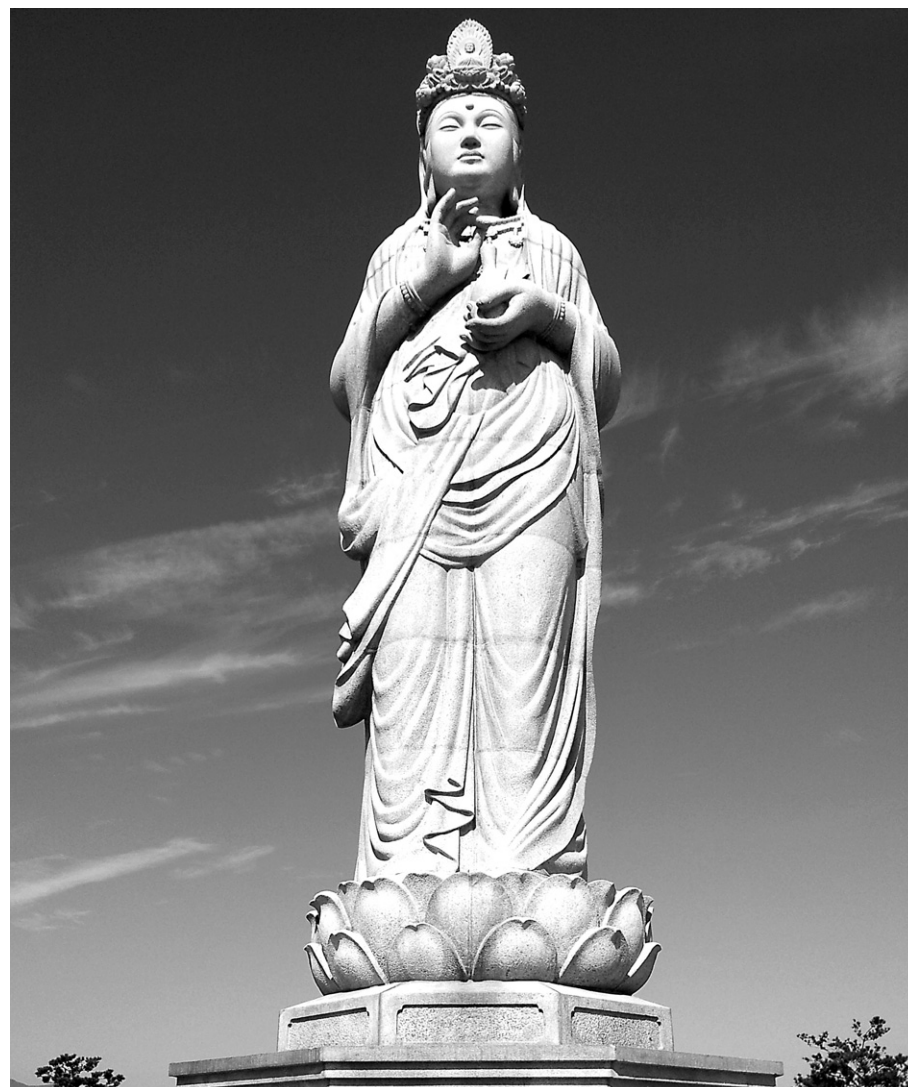
앙은 '일심정명 예배공양에 의한 구제'와 '관음의 자발적 내현(來現)구제'로 대별된다. 일심정명 예배공양에 의한 구제는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송(持誦)과 예념(豫念)에 의한 영험은 조건적 구제이지만, 관음의 자발적 내현구제는 '무조건적 무연(無緣)자비의 영응(靈應)'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의 경우는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신라 관음신앙의 독특한 창의성과 특수성을 엿볼 수가 있다.

2. 관음 후신 정취보살의 신라 상주

낙산사의 연기설화에 의하면 입당(入唐) 구법(求法)을 마치고 돌아온 의상(義湘, 625~702)이 양양 낙산의 해변 굴 안에 관음진신(觀音眞身)이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서역의 보타라가산(寶?洛迦山)의 이름을 따서 낙산(洛山)이라 하였다고 한다. 의상은 7일간 목욕 제계하고서야 비로소 굴 안에서 관음진신을 친견하게 되었으며 그 지시에 따라 산 위에 전당을 짓고 관음소상을 모셨다. 그리고 의상은 이곳 낙산을 신라 관음진신의 상주도량으로 삼았다. 이제 이곳의 관음은 서방극락세계에 상주하면서 아미타불을 협시하는 무량수불국 보살로서의 관음이 아니며, 인도 남해안의 보달라가산(光明山)에 머물고 있다는 『화엄경』 설의 관음과도 다른 신라의 관음보살이다.

신라의 관음보살은 이 땅 해동 낙산의 해변석굴에 항상 머물러 있으며 이곳이 진신의 주처임을 성사 원호(元曉, 613~686)를 등장시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고 있다. 즉 당대의 고승이었던 원효와 의상이 모두 이곳 낙산의 관음주처인 해변석굴에서 관음보살의 응현을 만남으로써 신라의 관음도량을 직접 열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의 관음은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응현하여 인연이 있는 신라인을 구제하고 이롭게 하였다. 그 예는 『삼국유사』의 관음 응현 및 영험 사실들에서 두루 확인되고 있다. 경주 남항사의 십일면관음화상(十一面觀音像)은 스스로 비구니의 몸을 나누어 신문왕 때(681~692)의 국로(國老)였던 경흥(景興)을 병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였다. 또 백을사대비상은 사문의 몸을 나누어 이국평에 잡혀간 국선 부례랑(夫禮郎)과 안상사(安常師)를 구해 왔다. 그리고 분황사의 천수대비화상은 가난한 여인 우조(憂助)의 눈 먼 딸의 눈을 뜨게 하였다.

관음보살을 친견한 원효와 의상에 이어 낙산사에 주석한 범일(梵日, 810~889)은 정취보살을 만났다. 정취보살은 관음과 함께 아미타불을 협시(挾侍)하는 대세지(大勢至)보살이다. 이 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하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길을 떠난 선재동자가 28번째의 관음보살에



낙산사 해수관음상. 낙산사 관음보살상 앞에서 기도하던 조신은 40년의 꿈을 통해 인생이 무상함을 깨닫고 서울로 정토사를 세운다.

신라 관음신앙은 수행 통한 자기 구제 성격 강해 범일 스님 일화서 관음보살 후신 신라 상주 드러나 조신 설화는 제행무상 터득케 하기위한 신앙 발현

이이 29번째에 만난 보살이다. 범일은 당나라 명주 개국사(開國寺)에서 승려들의 말석에 있던 왼쪽 귀가 없는 한 사미를 만났다. 사미는 말하였다. "나는 고향 사람입니다. 집이 명주(溟洲) 경내 익령현(翼嶺縣) 덕기방(德耆坊)에 있으니 범사께서 후일에 본국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제 절을 지어 주소서." 이후 공부를 마친 범일은 신라로 돌아가 굴산사(窟山寺)를 짓고 불교를 전파하였다. 어느 날 꿈에 개국사에서 뵈던 사미가 창 앞에 와서 말하였다. "전에 명주 개국사에서 범사와 언약이 있어 이미 허락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범일이 놀라 깨어 수십 명을 데리고 가서 익령현 경계에 가서 사미가 살던 곳을 찾았다.

낙산 아랫마을에 사는 덕기(德耆)라는 여인에게 여덟 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늘 동리 앞 돌다리 밑에서 나가 놀면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느 날 "나와

같이 노는 아이 중에 금색 동자가 있어요" 라고 한 사실을 범일에게 전하였다. 범일은 놀라고 기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놀던 다리 밑의 물속에서 석불 하나를 주웠다. 석불의 모습은 왼쪽 귀가 떨어져서 예전에 보았던 사미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 불상은 정취보살의 존상이었다. 이때 간자(簡子)를 만들어 절지를 터를 점치자 낙산사 위가 좋다고 나왔다. 이에 범일은 세 칸짜리 법당을 짓고 그 불상을 봉안하였다. 여기서 범일이 만난 사미승은 스스로 신라인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것은 관음보살의 후신인 정취보살이 신라 불국토에 상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조신의 꿈과 무상의 자각

승려 조신은 본사(本寺, 興教寺)에서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는 농장인 장원(莊園)의 관리인으로 파견되었다. 어느

날 그곳에 온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사모하게 되었다. 때문에 여러 차례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어주기를 남몰래 빌었다. 그러기 수년 뒤에 그 여자는 배필을 가지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지 않음을 원망하여 슬피 울며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심정이 노곤하여 잠깐 졸았다. 꿈에 갑자기 김씨 남자가 조용히 문으로 들어와 웃으며 말하였다. "제가 일찍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서 마음으로 사랑하여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만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하여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지금도 소원하여 죽어서 같은 무덤에 들어갈 뻔이 되려고 왔습니다."

이에 조신은 미칠 듯이 기뻐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년을 재미있게 살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두었다. 하지만 점차 가난하여져 집이라고는 네 벽뿐이요, 나물 먹는 것도 넉넉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른 도리가 없어 서로 이끌면서 사방으로 다니며 입에 풀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십 여 년 동안 초야에 떠돌다 보니 옷이 메추라기 깃처럼 되어 살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마침 명주 해현령(蟹嶺嶺)을 지나다가 열다섯 살 난 아이가 갑자기 굶주려 죽으려고 드러눕자 부모로서 한숨 짓고 탄식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으며 창고간에 말하였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나던 때에는 얼굴도 아름다웠고 의복도 깨끗했지요. 맛있는 음식을 당신과 나누어 먹고,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옷을 함께 해 입으며 50년을 함께 살아왔으니 정도 막역하게 들었고 사랑도 깊어졌지요.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지만 근년에 늙고 시약해져 병은 해가 갈수록 굶주림과 추위로 날로 심해져 오는데, 방 한 칸, 국 한 그릇도 남이 빌려주지 않으니 이 집 저 집 구걸하는 부끄러움이 산보다 무겁고, 어린 것들의 출고 주림을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부부간이라 하여 사랑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젊은 날 고향던 얼굴과 웃음도 덧없는 풀잎의 이슬이 되었고, 지란(芝蘭) 같던 언약도 바람 앞의 버들가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 더 누가 되고, 나는 당신이 있어 걱정이 더욱 많습니다. 생각건대 옛날의 기쁨을 꿈같이 생각해보니 오늘의 우환의 시작이었습니까. 당신이나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 마리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고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버리고는

편안할 때 따르는 것이 인정상 못할 일이지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헤어지고 만남도 운명에 있는 것이니, 철권대 여기서 헤어집니다."

조신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각기 아이 둘씩 갈라 말고 가려하는데 여인이 말하였다. "나는 고향으로 갈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헤어져 길을 가던 중에 홀연히 꿈을 깨니 조그마한 등불만이 어스름하게 비치고 밤은 벌써 깊었다. 아침에 보니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마침내 마음이 망연하여 세사에는 뜻이 없고 삶에 염증이 났다. 마치 한 평생의 괴로움을 다 겪은 듯하여 세상에 돌아갈 뻔이 되려고 왔습니다. 이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관음보살상을 바라보며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蟹嶺)에 묻혔던 아이 무덤을 파보니 바로 돌머리였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근처 절에 봉안하고 서울로 올라와 장원 소임을 사임하고 사재를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 착한 일(白業)을 부지런히 닦았다. 그 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신라의 관음보살은 꿈을 통하여 인생이란 일장춘몽(一場春夢)이요 남가일몽(南柯一夢)임을 보여줌으로써 승려 조신으로 하여금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체득하게 하였다. 일연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이 전기를 읽고 책을 덮고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이 그러하리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간세상의 즐거움만 알고 기뻐하여 애쓰지만 다만 꿈을 깨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찬시를 지었다. "졸검던 한 시절 뜻은 이미 한 가하고/ 시름 속에 묻힌 몸이 시나브로 늙었으리/ 한 기 좁쌀 밥 짓는 동안 더 기다려 무엇하리/ 인생살이 꿈결인 줄 내 이제 알았노라/ 몸뒹을 잘잘못은 먼저 성의에 달린 것/ 흠아비는 미인을 도둑은 창고를 꿈꾸네/ 어찌 가을 날 허룻말 꿈만오/ 때때로 눈 감아 청량산에 이를거나." 관음과 정취 보살이 깃든 낙산사에서 조신은 '그리운 정에 지쳐' 잠깐의 졸음 끝에 든 긴 꿈'의 욕망에서 깨어난 뒤 서울로 돌아가 정토사를 짓고 선업을 쌓으며 살아갔다.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관산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김영태, 『한국불교사정론』(불지사, 1992).
- 김영태, 『삼국유사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 고영성,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대,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극락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 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견기명상
3. 위파사나 : 사념처 관법, 오정식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오금희, 육단금 ..대인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 (2박 3일 ~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월요일 17:00 2.금요일 08:00 3.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은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